

기고

봄철 화재, '설마'하는 마음이 '전부'를 태웁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집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나들이를 즐기고, 묵은 짐을 정리하며 새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우리가 잊기 쉬운 위험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번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전기화재는 매년 이맘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잦은 시기 중 하나입니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옮겨붙거나, 야외 활동 중 피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소각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씨 하나가 강한 봄바람을 타면 통제 불능의 화재로 번지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전기화재도 봄철 주요 화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겨우내 쉬지 않고 가동된 전열기기는 노후화되기 쉽고, 봄철 대정소나 이사 과정에서 전선이 꺾이거나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훼손된 전선 방지, 콘센트 주변 먼지 관리 소홀은 언제든지 전기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노인 단독 세대의 경우 전기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아 화재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출 전 전열기기 전원을 끄는 습관, 콘센트 주변 먼지 제거, 낡은 전선 교체, 야외에서 불을 피운 뒤 완전히 끄는 것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화재를 막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곡성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봄을 더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오늘 집 안 전기 설비를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경원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수없이 진화해 왔다.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특히 오늘날은 인간 자체가 네트워크인 시대다. 즉, 인간이 곧 사무실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만든 것이 인터넷, 핸드폰, 자동차 등이다. 이 3가지만 있으면 그 어디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잡노마드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사회는 특정한 장소에서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업체가 없어진다. 중개무역상, 스포츠선수, 지적 사업자, 연예인 같은 부류들이 바로 그들이다. 곧 자기 자신이 회사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스스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적 사업자는 핸드폰과 인터넷이라는 연결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동 수단은 물론 자동차 등이다. 즉 인터넷, 자동차, 핸드폰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세대를 잘살아가기 위해서는 간단없이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주류에서 변방인으로 전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락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변화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변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기왕에 맺어지는 것이라면 원활한 관계여야 한다. 성숙한 관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나' 그리고 '우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 노력할 때 그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상호작용 내용과 방식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각기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다양한 행동양

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구별이 아닌 차별을 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고 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다.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쪽을 배타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취는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곧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노·사간의 타협이 어렵고 계층 간의 융화도 힘들다.

심지어 가족 간의 정까지도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관계의

형성은 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통찰하는 데는 태만하다.

오히려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처음부터 주변 환경에 분노로 대항하면서 자신의 영역만 구축하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타인을 질시하는 것이다. 자신의 불안의 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빚어내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고,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참다운 우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인간성을 그 기저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집회 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경찰의 역할은 달라지고 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이자 시민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동시에 모이는 공간인 만큼 작은 변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사람으로서 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다른

입장과 감정이 한 공간에 모여 있음을 실감한다.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외침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불편일 수 있다. 그 사이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책임은 '질서'보다 '안전'이다. 모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집회 대응의 출발점이자 지켜야 할 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집회 대응은 사전적·예방적 관

리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보충적으로 질서를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주체 측과 충분히 소통하며 이동 동선과 집결 장소를 점검하고, 인파

밀집 구간 관리와 긴급차량 통로 확보 등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안전 위에서 있어야 한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책임이 모일 때, 집회 현장은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드러나는 신뢰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현 고흥경찰서 경비안보과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음력 2월 6일)

Grid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음력 2월 6일).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 space-themed background with an astronaut. Text includes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and dates '2026.5.2. (토) - 5.5. (화)'. Location is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